

## 啓蒙傳疑序\*

내가 啓蒙의 글을 살펴보니 깊숙한 뜻을 천명한 것이 해와 별빛처럼 밝다. 또 여러 선비들의 해석이 모두 정밀하고 해통하여 유감이 없다. 그러나 理數의 학문이란 범위가 넓고 미묘하며 얽히고 얽히어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한 가지 어려움을 꿰뚫어 알게 되면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고, 찾아볼수록 더욱 무궁하다. 더구나 사람의 소견이란 다름이 없지 않아 어진 자가 보면 仁이라 하고, 지혜로운 자가 보면 知라고 하니 반드시 참고하여 바로잡은 뒤라야 그 귀추를 알 수 있다. 또 증거로 끌어들이는 말은 간혹 숨겨진 책이나 괴팍한 글에서 나온 것이므로 꼭 상고하여 논한 뒤라야 그 뜻을 엿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의심나는 나머지 거듭 의심이 생기므로 註解 중에도 꼭 주해를 덧붙여야 한다. 심지어 깊이 숨겨진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으며, 전해지는 글의 잘못됨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곱셈·나눗셈의 법도 자세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늙고 병들어 흥미하여 간혹 조금 알게 된 것이 있더라도 번번이 잊어버려서 종종 아득하여 애초에 그 방불한 것도 보지 못한 것 같으니 참으로 끝내 여기에 진보가 없을 것이 두렵다. 몇 해 전부터 늘 이 글을 읽으면서 간혹 생각에 따라 합치되는 것이 있고 혹은 옛날을 상고하여 증거를 찾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손가는 대로 기록함을 면치 못하였고 이것이 쌓여 책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대체로 상고하여 보기에 편케하고 잊어버리는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것으로 전에 수찬된 것보다 훌륭한 것을 구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일찍이 苑落子意見書<sup>1)</sup>를 살펴보

\* 퇴계학연구원, 「退溪學 譯註叢書」 제10권(1996)에서 발췌·수록한 것임

1) 苑落子意見書 : 明나라의 韓邦奇가 쓴 책. 혹은 苑落志樂이라고도 하며 기이함

니 계몽에 공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역시 근세에 얻기 어려운 글이었다. 다만 도표가 너무 자질구레하여 매우 발명된 것이 없고 학설은 너무 심오하여 기이한 뜻 세우기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지금 그 중요한 뜻이 있는 약간의 조목을 가려 드러내고, 나머지는 감히 그가 한 바를 본받지 않았으니 보는 자는 자세히 알라.

---

을 좋아한 것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律呂의 해설에 있어서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정밀하였다.